

필리핀의 문화접변과 대중문화

박 회*

- 목 차 -

- I. 머리글
- II. 필리핀의 전통적 사회구조와 문화
- III. 식민지화와 필리핀의 문화접변 과정
- IV. 독립 이후 대중문화의 확산과 정체성의 문제
- V. 맺음말

I. 머리글

20세기는 세계문화사에서 가장 독특한 시기로 기록되고 있다.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동시에 '문화의 세계체계'(world system of culture)가 확립되면서 경계가 명확했던 각 사회의 '문화적 모자이크'에 대해 작별을 고해야 할 조건들이 글로벌 시대의 전개에 따라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Hannerz 1997, 107). 이제 "개별국가들의 고유문화들은 특수한 진화양상을 보여준다"던 신진 학론자들의 논의와는 달리, 서구문화는 하나의 보편적 흐름을 이루어내며 개별국가들의 특수한 문화양상들을 소멸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결

* 서원대학교 사회학과

국 서구적 상업문화 또는 소비주의의 에토스가 전세계의 고유한 문화요소들을 침윤시키고 있는 셈이며, 세계 각 사회는 문화적 정체성이 와해될 지도 모른다는 적색경고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들의 경우에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는 오래된 역사적 유물처럼 인식되어 왔고 현재도 그 연장선 위에 놓여 있을 따름이다. 글로벌 시대가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국가들은 전세계를 통합하려는 관성력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재에 앞서 이미 위기의 시대를 겪어 왔다고 할 수 있다.¹⁾ 식민지 모국의 문화에 동화되고 전통문화의 장기적 침윤과정 속에서 이미 문화적 접변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형태로 뒤바뀐 경우조차 있는 것이다. 비교문화 연구가들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필리핀의 경험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1960년대 후반 필리핀의 민속지를 연구하려던 시카고 인류학자 로잘도에게 그의 하버드 대학 지도교수가 “필리핀인들은 문화없는 민족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생각을 고치라고 충고하였던 것이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다(Rosaldo 1989, 197).

물론 이러한 편견은 세계 최장기간 동안의 식민지배를 받으며 형성된 필리핀인들의 일부 ‘식민지적인 심성’의 징후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 필리핀인의 역사 속에는 그들이 오랜 식민지배의 경험세계 속에서 만들어 온 상징체계와 공유문화가 윌리엄스가 지적한 이른바 강력한 ‘느낌의 구조’(structure of feeling)를 이루며 흔적들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Williams 1997, 84-85). 식민지 이전 남방계와 관련된 다양한 아시아적 유산이 다양한 복합문화 속에 융해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스페인의 식민지배를 통해 가톨릭과 히스패닉 문화와의 접변을 거쳐 새로운 양식으로 정착되었으며, 미국의 대중적 소비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이질적인 문화들에 동화되면서 새로운 ‘느낌의 구조’를 만들어 온 것이다.

그렇지만 필리핀을 ‘서구화된 아시아 국가’라는 별칭으로 부르더라도 여전

1) 로버트슨이 지적했듯이, 사실 글로벌화는 정보통신의 발달을 통해 전세계를 연결시키며 현시대에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지만, 그러한 통합력은 이미 15-16세기부터 단계적이고 누적적으로 전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왔으며 점차 그 팽창력을 확대시키고 있을 따름이다(Robertson 1992).

히 필리핀 문화는 필리핀인들의 것이다. 그리고 필리핀의 오랜 역사 속에는 주류적인 문화요소와 잔여적인 요소, 그리고 대안적인 문화요소들 사이의 치열한 공방의 기록이 남아 있으며, 그러한 공방과정이 시대별로 독특한 문화양식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단지 필리핀의 경우는 쉴즈가 지적했던 이른바 문화적 '중심과 주변'의 길항관계가 '식민지 지배문화'와 '토착문화' 사이에 작용하였을 따름이다(Shils 1970, 1-14). 그리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관건이 되고 있는 '미국화'의 추세 속에서도 필리핀적인 전통문화의 특징요소들은 그 새로운 조건들과 또 다른 공방의 역사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 문화의 갈래들을 탐사해 보기로 한다.

II. 필리핀의 전통적 사회구조와 문화

1. 지정학적 조건과 사회구조: 인종적 다양성과 혼합적 통합구조

필리핀의 기원은 오래 전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도래한 니그리트인(The Negritos)으로부터 시작되었다(Dolan 1991). 물론 카가얀(Cagayan) 지방에서 발견된 유적을 토대로 하면, 필리핀 조상의 역사는 25~50만년 전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타본(Tabon) 동굴이나 팔라완에서 발견된 화석은 약 2만 3천년 전의 것들로 추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니그리트인들이 약 30,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빙하기에 대륙과 연결된 육로를 통해 아시아 대륙에서 건너와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²⁾

그 후 육로가 단절되고 필리핀은 다양한 도서지역으로 분리되었다. 아시아 대륙에서 동남방으로 약 4,000km 떨어진 위치에 남북 최장거리 1,851km, 동서간 최장거리는 1,107km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약 7,100여 개의 섬으로 산개되었던 것이다.³⁾ 따라서 필리핀의 군도 사회에서 특정 집단들 사이의 결합

2) 니그리트인들의 후예들은 현재에도 루손 섬 등의 고산지대에 잔류하여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37).

3) 필리핀의 국가명칭이 Republic of the Philippines로 표기되는 것도 이러한 지정학

및 여타 집단과의 격리를 통해 지역적으로 독특한 언어적 차별화가 이루어졌던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필리핀의 언어는 11개이며 군도들에 고유한 87개의 방언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비교 언어학적으로는 126종족에 방언까지 합하면 186 그룹으로 나눌 정도로 다양하며, 인종적으로도 통일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⁴⁾

그러나 그 뒤 수천 년에 걸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지역에서 말레이인들이 유입되어 필리핀의 남부지역에 선주민으로 자리를 잡으며, 필리핀은 서서히 통합의 형태를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이들 저지대 지역의 말레이계 주민들은 영농을 위주로 한 가족중심의 친족집단(Kamag Anakans)을 기반으로 하여 다투(Datu)라고 불리는 촌장을 우두머리로 한 씨족집단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다. 바랑가이(Barangay)라는 명칭의 촌락이 그것이며, 이 바랑가이는 30내지 100 가족으로 구성되어 섬이나 강, 산을 경계로 분리되어 있었다(유석춘 1994, 9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39).⁵⁾ 이들은 통혼을 통해 니그리트인들을 통합시켜 나갔으며, 따라서 족외혼 과정이 필리핀 군도의 인종적 통합을 가능하게 만든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Dolan 199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29-30).

한편, 필리핀의 기후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몬순, 열대저기압, 열대혼류대의 영향으로 강우량이 대단히 많으며, 특히 몬순기후는 침전된 토양을 토대로 한 농업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주었다. 따라서 각 도서지역에

적 공간단위의 복수성 때문이다. 그러나 아시아 대륙과 오세아니아 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호아지중해'(濠亞地中海)로 불리우며 환태평양조산대에 속해 있는 필리핀에서 유인도는 약 1,000여개에 달하지만, 면적이 8km² 이상인 섬은 154개에 불과하며, 특히 루손(Luzon), 민다나오(Mindanao), 파나이(Panay), 사마르(Samar), 민도로(Mindoro), 팔라완(Palawan), 네그로스(Negros)와 비자야스 군도(Visayas)－레이테(Leyte), 세부(Cebu), 보홀(Bohol), 마스바테(Masbate)의 4개 섬으로 구성됨－ 등 11개 섬이 총면적의 95%를 차지하고 있다(Dolan 199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20-22).

- 4) 물론 지방적 경계를 넘어 타갈로그어(Tagalog)와 그 비슷한 비자야어(Bijaya)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특히 타갈로그어가 지배적이다(Dolan 1991).
- 5) 원래 말레이 고어로 바랑가이는 이주민들이 타고 온 소형 선박을 의미한다(양승운 1996, 123). 그러나 이것이 필리핀에서는 소규모 가족들로 구성된 마을을 의미하는 사회적 조직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산재해 있던 토착민들은 문순기후에 의한 풍향의 교차를 활용하여 상업활동을 포함한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른바 환절적 형태(articulated form)의 느슨한 통합적 사회구조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⁶⁾

2. 필리핀의 토착문화: 아시아적 문화전통의 융합

환절적 통합구조를 가진 필리핀 사회는 열도라는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교역과 혈연적 결합을 통해 인도, 중국, 일본, 아라비아 등의 문화권과 상당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었다. 물론 바랑가이를 이루던 필리핀 군도의 각 사회들은 비록 통일된 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있지는 않았으나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던 결과, 아시아 제국의 정치적 지배를 받지는 않았다. 중립적인 자유무역시대와 비슷하게 교통과 무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문화권의 다양한 문화요소들은 필리핀의 토착문화로 흡수되었다.

먼저 말레이계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이들이 미친 영향의 단적인 보기는 민다나오 지역에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쿨린탕간'(Kulintang)이라는 음악과 민속춤에서 발견된다. 특히 음악의 경우에는 남방계의 영향이 지대하며, 중국이나 일본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민속예술은 남쪽의 이웃사회들에서 차용하여 토착화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인도문화의 영향도 대단히 컸는데, 일부 힌두문화는 일찍부터 직접적인 교역을 통해 유입되었고,⁷⁾ 9세기에는 스리 비자야(Sri Vijaya)와 마자파히트(Majapahit) 등의 불교제국들을 통해 미약하나마 인도의 일부 토착문화 요소가 간접적으로 필리핀에 전파되었다. 특히 고대 타갈로그 문자인 바이바이인

6) 환절적 통합구조는 사회학자 뒤르케임(Emil Durkheim)이 동질성과 유사성을 토대로 결속을 이루는 전통사회의 '기계적 연대'에 대해 논의하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이는 개별 사회집단들이 자급자족적 생존경제를 영위하면서 강력한 정서적 유대를 다지며 집단내적 응집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필요시에는 다른 집단들과의 사회·경제적 교류를 통해 느슨하지만 보다 큰 통합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7) 1950년대에 바탕가스(Batangas) 해변 동굴에서는 시바신과 라마야나 서사시에 등장하는 인물을 조각한 100여개의 석상이 발견되었으며, 산스크리트어와는 대비되는 문자기록도 발견되었다. 이 문자는 술라웨시(Sulawesi)에 정착한 부기스(Bugis)라는 해양민족의 문자와 대단히 흡사하다.

(Baybayin)은 9세기 아쇼카 문자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대나무 껍질이나 군 진흙판에 기록되었고 중요한 외교적인 문서나 교역조건들을 기록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문자는 주로 민다나오와 일로코스(Ilocos)에서 사용되었으며, ama, nanay, asawa, dalaga, mutya, paa, mata, sakit, patay, bansa, maharlika, raha, saksi, lasa, halaga, kalabaw, kalan, 그리고 심지어 uyang 등의 문자들은 현재의 타갈로그어에도 나타나고 있다.

힌두문화는 필리핀의 민속문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로카노스(Ilokanos)의 서사시 램-앙(Lam-ang), 라나오(Lanao)의 다랑간(Darangan), 비콜란디아(Bicolandia)의 이발론(Ibalon), 일림(Ilim)과 후드후드(Hudhud) 등은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로 대표되는 힌두 서사시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아르주나(Arjuna)의 모험'에서 영향을 받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다. 본톡(Bontog)의 루마위그(Lumawig), 발리투크(Balituk)의 이푸가오(Ifugao) 등이 그것이다. '원숭이와 거북이' 이야기도 인도 기원의 타갈로그 우화이다.

풍습과 경험적 기술문화의 유입도 두드러진다. 신부의 부모에게 지참금을 주거나 처가에서 사역하는 관습, 방문객에 대한 환영의 표시로 꽃목걸이를 걸어주는 관행, 신혼부부에게 쌀을 던져주는 행위 등도 고대 인도의 풍습에서 유래된 것이었다. 선박 건조기술과 면제의류 직조기술, 그리고 쿠디아피(Kudyapi--기타의 일종) 등의 악기도 인도에서 도입된 것이었다.

한편, 중국의 영향도 무시하기 힘들다. 중국인들의 필리핀 진출은 춘추전국 시대부터 지속되다가 10세기경부터는 중국 본토의 복건성(福建省)에서 중국인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특히 10세기 송대의 기록에는 필리핀과 외교적 교류가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고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무역이 지속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중국의 도자기들이 필리핀 지역에서 발굴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류의 결과 필리핀의 토속음식인 불에 구운 새끼돼지 요리나 림피아스(lumpias)와 사바우스(sabaws) 등은 중국의 영향아래 토착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에 의한 중매관행, 장례식에서의 전문 곡쟁이 고용관행, 신년의 폭죽놀이, 효의 가치 등이 필리핀에 유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어에서 유래된 필리핀어도 많이 있다. ate, diko, kuya, lelang, sangko, sanse, bakya, bantay, buwisit, gunting, pinto, pinggan 등의 용어들이 그것이다.

더구나 필리핀에 이주해온 중국인들은 저지대 말레이계 원주민들과 통혼을 통해 메스티조(Mestizos)라는 혼혈세력으로 필리핀에 동화되어갔다. 현재 중국계 또는 중국계 메스티조는 총 60만 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만과 중국본토에 인접해 있는 마닐라 등지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필리핀에서 중국인들은 중국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고유의 교육 체계를 통해 중국의 역사와 문학 및 언어를 교과과정에 편입시켜 놓고 있기도 하지만, 중국계 메스티조는 자신들을 필리핀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Dolan 1991).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였던 이슬람교가 필리핀 남부지역인 술루(Sulu) 열도와 민다나오 섬을 중심으로 전파된 시기는 14세기말이었다. 1380년 메카의 학자이자 이슬람 선교사였던 막둠(Sharf Makdum)이 술루에 도착하여 포교활동을 하였고, 시무눌(Simunul) 섬에 모스크를 세워 현재 폐허는 되었지만 유적으로 남아 있다. 그는 시부투(Sibutu)에서 사망하였지만, 1390년 바긴다(Raha Baginda)가 수마트라에서 술루에 도착하여 막둠의 유업을 계승하였고, 최초로 화약무기와 코끼리를 필리핀에 도입하기도 하였다. 1450년에는 바크르(Abu Bakr)가 술루에 진출하여 바긴다의 딸 파라미술리(Paramisuli) 공주와 결혼하여 최초로 술탄이 되었으며, 그후 1475년 카붕수완(Sharif Kabungsuwan)이 토착민 출신의 공주와 혼인을 맺고 마귀다나오(Maguindanao)의 술탄이 되었다. 따라서 1571년 스페인의 레가스피(Miguel Lopez de Legaspi)가 마닐라에 당도하였을 때에는 이슬람의 세력권이 술루, 마귀다나오, 비사야스, 마닐라에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⁸⁾

물론 스페인의 진출 이전까지만 해도 필리핀 열도에는 통일제국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따라서 국가적 정체성이나 민족적 통일성이 확보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느슨한 환절적 통합형 사회를 이루면서 몬순기후의 열풍으로 말레이와 인도, 그리고 중국과 이슬람의 문화를 융해시켜 주형에 부어 독특한 문화양식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결국 필리핀의 토착화된 전통

8) 술루와 민다나오 지역에는 현재 총인구의 5%에 달하는 이슬람교도들이 잔류하고 있어 고산지대의 부족들과 더불어 필리핀의 예외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무슬림 필리핀노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모로(Moros)가 그들이다(Dolan 1991).

문화는 아시아적 문화전통의 합금형태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Ⅲ. 식민지화와 필리핀의 문화접변 과정

1. 스페인의 통치와 강제적 문화접변: 1521년~1898년

서구적 아시아 국가로 평가되곤 하는 필리핀의 식민지화 과정은 사실상 지중해와 대서양, 그리고 태평양으로 세력권이 이어진 자본주의적 팽창과정과 이어져 있다. 프랑스 아날학파의 대가 브로델(Fernand Braudel)이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동양과의 국제무역을 대신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섰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해양 진출이 필리핀의 역사를 유럽에 열어놓았던 것이다.⁹⁾

마젤란(F. Magellan)이 세부섬에 도착한 해는 1521년이다. 물론 그는 400여명의 주민들에게 세례를 주고 막탄섬(Mactan)의 추장에게 살해당하였지만, 나머지 부하들은 항해를 계속하여 세계일주를 완성하였다. 그후 이 지역에 대한 탐색을 계속하던 스페인 원정대는 1543년 사마르섬(Samar)과 레이테섬에 도착하여 당시 스페인의 왕자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필리핀(Philippinas)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1565년 드 레가스피(Miguel L. de Legazpi)는 이들 지역을 정복하기 위한 원정대장이 되어 세부섬을 근거지로 진출하여 필리핀 초대 총독이 되었고 그후 마닐라를 거점으로 식민지 지배를 시작하였다.¹⁰⁾ 1571년의 일이었다.

물론 당시까지 필리핀 군도는 광범위한 지역에 산개하여 느슨한 환절구조

9)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해양진출은 15세기에 교황선(Pope Line)이 설정되어 스페인은 대서양으로, 포르투갈은 인도양으로 진출방향이 확정되었던 바 있다. 물론 그후 상반된 방향으로 해양개척을 시도한 두 세력은 동남아시아에서 조우하게 되었다.

10) 원래 스페인의 필리핀 진출은 몰루카제도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의 교역을 위해 마닐라를 교두보로 건설하면서 시작되었지만, 무역활동이 실패하자 필리핀에 전념하여 식민화 작업이 진행되었다(김태승 1989, 27).

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랑가이를 넘어서는 정치조직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스페인의 식민통치는 비교적 수월하였다. 따라서 스페인 지배자들은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바랑가이를 바리오(Barrío)로 개칭하여 최소단위의 행정구역으로 확정하고 원주민들의 생산물 수탈과 강제조세, 노역을 위해 이 행정단위를 활용하였다(양승운 1996, 123). 스페인이 느슨한 정치조직 공백상태의 틈새를 활용하여 친스페인적 계급세력을 양성하고, 식민지적 착취를 위해 '하시엔다'라는 봉건적 토지소유제의 확립과 가톨릭으로의 개종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16세기 이후 스페인이 필리핀을 장악하면서 가톨릭은 필리핀의 새로운 신념 공동체로 자리를 잡아갔으며, 필리핀인들은 1821년까지는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멕시코에 의해, 그리고 그 뒤에는 스페인 본국에 의해 직할통치를 받으며 고산지대와 남부의 이슬람권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하게 되었다.¹¹⁾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은 한편으로는 필리핀 군도의 주민들이 정치적 통합이나 관료제적 기구를 확립하지 못했다는 점과 가톨릭 선교사들이 전통적인 정령신앙의 기복적 요소를 수용하면서 원주민들에게 접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곧, 무속 제사장을 통해 신과 접촉을 하는 방식이 사제를 통해 신과 대화하는 가톨릭의 형식과 유사했고, 가톨릭이 정령신앙의 축제양식을 받아들여 성인상을 받쳐든 행렬의식을 용인하고 연극적 양식을 적극 도입하였던 것이다.

가톨릭 전통이 전통적인 정령신앙과 결합하여 보수적 크리스찬 신앙을 확산시켜 대중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점은 필리핀 문화의 연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마틴(Martin, 1990)은 기독교가 정령신앙의 기복적 요소와 결합하여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남미의 상황을 분석한 바 있는데, 아시아 최대의 가톨릭 국가 필리핀의 상황도 이와 대단히 흡사한 것이다. 막스 베버가 지적했던 바, 지배층의 종교가 피지배층에 주입되는 경우에는 기복적인 구원종교

11) 1989년 현재 필리핀 총인구의 91.5%가 크리스찬 말레이이며, 가톨릭은 약 82%, 삼위일체설을 부정하는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Iglesia ni Kristo)와 다양한 개신교 분파들이 약 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은 슬투의 술탄(Sultanate)을 결코 굴복시키지 못했으며, 현재 부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슬람 분리주의 운동의 뿌리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다.

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며(Weber 1968, 486-488), 이러한 기복적 종교로의 변질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은폐와 정당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스페인의 문화적 영향은 언어학적인 측면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예컨대, 잠보앙가(Zamboanga)의 남부 도시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차바카노(Chavakano)라는 방언은 다소 곡해의 소지는 있지만 스페인 중부 지역의 카스틸라인들(Castillians)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언어이다(*Time* 1998/04/27, 24). 더 나아가 혈연적 결합도 나타났다. 스페인계와 말레이계의 통혼을 통해 이루어진 스페인계 메스티조라는 또다른 인종적 결합의 사례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적인 문화접변을 통해 17세기 중반부터 이식된 히스패닉의 문화적 전통은 필리핀인들의 혈관 속에 서서히 유입되어 토착문화의 흐름을 돌려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스페인의 식민지 통치는 오히려 영토와 국경 개념을 심어주기도 하였다. 더구나 19세기말부터는 부유층들 사이에서 자유주의적 개혁 사상이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민중들의 천년왕국 전통도 일러스트라도스(ilustrados)라는 유럽화된 민족주의적 엘리트와 결합하여 국민적 저항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세큐라레스(seculares)로 통하는 원주민 출신의 신부들이 1872년의 고펀부르자(Gomburza) 사건을 계기로 처형되어 순교자로 추앙받기도 하였다(Dolan 1991).¹²⁾

결국 스페인에 의한 식민지 지배영역의 확보를 계기로 필리핀의 지역적 통합이 가능해지고, 제국주의적 침탈에 대한 각성과 이에 저항할 지도력의 결집을 통해 필리핀의 국가의식은 19세기말에 극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일부 개혁적 지식인과 바르셀로나 유학생 등을 대표하여 1887년부터 활동에 나서기 시작한 리잘(Jose P. Rizal) 주도의 프로파간다 운동, 1892년 보니파시오(Andres Bonifasio)를 비롯한 노동자 출신의 지식인들이 마닐라에서 결성한

12) 고펀부르자는 Gomez, Burgos, Zamora라는 세 명의 필리핀인 신부의 이름에서 머리 글자들을 딴 것이며, 이들이 처형된 이유는 카비테(Cavite) 주에서 실시되었던 인두세와 강제노동면제의 폐지에 저항하는 노동자 폭동의 배후로 이들이 지목받았기 때문이었다.

‘민족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를 지닌 비밀결사대 카티푸난(Katipunán), 그리고 카비테 주에서 성장하여 주도권을 장악한 아귀날도(Emilio Aguinaldo)의 민중 해방군은 이러한 국가의식 성장과정의 상징적 표현이었다(Dolan 199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45-46; 이상윤 1992, 145).¹³⁾ 필리핀인들이 자신들에게 붙여졌던 ‘인디오’라는 이름 대신에 ‘필리피노’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시작한 것이다.¹⁴⁾

2.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유화적 문화접변 정책: 1898~1942년

1898년 미국과 스페인 사이의 전쟁이 확대되자 홍콩에 도주해 갔던 아귀날도는 미국의 지원 하에 필리핀에 귀국하여 1898년 6월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12월에 파리에서 미국과 스페인 사이에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필리핀의 독립은 무산되었으며 필리핀은 미국의 지배아래 놓이게 되었다. 2천만 달러에 필리핀의 운명이 미국의 수중으로 넘어간 것이다. 1899년 산 주안(San Juan) 다리를 건너던 필리핀 병사가 미군 보병에 의해 살해되자 아귀날도가 미국에 전쟁을 선포하고 말로로스(Malolos)에 최초의 공화국을 수립하였지만 1901년 미국에 체포됨으로써 독립은 무위로 돌아갔다.

물론 이러한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찬반의 논란은 거세게 일어났다. 키플링(Rudyard Kipling)이 1899년에 “백인의 짐”(The White Man's Burden)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필리핀 점령에 대한 부담을 경고한 뒤 1903년까지 미국의 행동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마크 트웨인(Mark Twain)이 지적한 것처럼, “문명화의 사명 속에서 3만 명의 미군이 100만 명의 필리핀인들을 몰살시켰다”는 표현은 ‘이윤을 위한 짐’이었을 따

13) 리잘은 1896년 폭동이 일어나자 스페인 본국에서 파견된 3만명의 군대에 의해 마닐라에서 체포되어 처형되었고, 보니파시오는 그와 주도권 쟁탈전을 벌였던 아귀날도에 의해 1897년 반역죄로 처형되었다.

14) 이것이 토착적 문화 정체성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래 ‘필리피노’는 스페인계로서 필리핀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지칭하던 명칭이었으며, 당시까지 토착민들은 ‘인디오’로 불렸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전자는 ‘스페인인’으로, 그리고 후자는 ‘필리피노’로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름이었다.

한편, 미국의 맥킨리(W. McKinley) 대통령은 ‘파리조약’에 근거하여 1899년 1월 ‘제1차 필리핀위원회’를 통해 잠정적으로 군정을 실시하였지만, 그후 1900년 3월에는 태프트(W. H. Taft)를 민정장관으로 하는 ‘제2차 필리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법권과 제한적이거나 자치권력을 부여하여 지배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1902년의 6월 ‘필리핀조직법’은 ‘필리핀위원회’를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원으로, 그리고 의회는 하원으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미국의 권리장전’을 필리핀인들에게 확대적용하고, 2명의 필리핀위원회 대표들을 미의회에 참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07년에는 선거가 실시되어 동남아시아 최초의 정당인 민족주의당(Nacionalistas)이 압승한 상태에서 10월에 의회가 발족되었다(Dolan 1991).

이 선거에서 미국은 이전에 마을 의회에서 관리경험이 있고 21세 이상의 남성으로 영어나 스페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약 1.41%의 사람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Constantino 1984, 13). 스페인 점령기에는 무교육 정책으로 90% 이상의 인구가 문맹상태였었지만, 미국은 필리핀에 영어교육과 초등의 무교육도 시행하면서 필리핀의 미국화를 급진전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민족주의당은 즐기차게 즉각적인 독립을 주장하였지만, 연방주의당(Federalistas)의 경우에는 필리핀이 미국의 한 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경우도 있었다.¹⁵⁾

한편 해리슨 총독이 재임한 1913~1921년의 시기에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필리핀인 총원이 대규모로 전개되었다. 또 1916년에는 안정적인 정권이 수립되면 독립이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필리핀 자치법’이 제정되었고 규정으로만 명맥을 유지하던 양원제 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상황 진전 속에서 미국의회는 1935년에 “향후 10년 이내에 연방정부의 지위부여와 동시에 국권회복을 약속한다”라는 ‘필리핀 독립방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 독립방안에 따라 구성된 연방정부의 대통령으로는 케손(Quezon), 부통령으로는 오스만(Osemena)이 선출되어 6년간 존속하였다.

15) 현재까지도 필리핀의 일부 정당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정강정책으로 제시되기도 하며, 필리핀 대중들도 일부는 그러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Time* 1998/04/27, 23).

결국 미국의 필리핀 지배정책은 초기의 필리핀-미국 전쟁의 경험을 제외한다면 대체로 '자비로운 동화정책'의 성격을 띠고 전개되었다. 또한 미국의 유화적 식민지 지배정책은 필리핀인들에게 강제적이 아니라 자발적인 문화접변의 계기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독립을 이룰 때까지 '민주주의의 전시장'이라는 별칭을 부여받으며, 필리핀의 미국화가 급속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독립은 1941년 12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일본이 패망한 1945년 이후에야 실현될 수 있었다. 전쟁기간에 워싱턴에 망명해 있던 임시정부가 귀국하여 임시정부 대통령 오스만의 임기만료에 따라 1946년 총선을 실시하고 자유당의 로삭스가 7월 4일 필리핀 공화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던 것이다.

3. 식민지 경험의 집합적 기억과 서구적 아시아 사회의 형성

1) 식민지적 심성의 착색과정

그렇다면 어떠한 메카니즘이 식민지적 심성으로 필리핀을 윤색시켰는가? 먼저, 필리핀인들의 이름이 스페인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어도 스페인 이름이 활용되게 하였다. 가계조사의 필요성 때문에 스페인 정부가 스페인식의 이름 명부를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처럼 출계명이 없었던 필리핀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의 이름에 히스패닉의 색채가 배어들게 되었다. 또한 필리핀에서 가톨릭의 종교적 가치는 일종의 식민지적 심성을 주입시키고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적된다. 영국에서 감리교가 규율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미덕을 노동자들에게 주입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Thompson 1966), 가톨릭은 필리핀의 당면한 민족 모순을 은폐시키고 집합적인 저항의 이념을 상쇄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실제로 가톨릭으로의 개종을 촉진시키기 위해 스페인 출신의 신부들은 연극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1630년대 민다나오 섬에서 이루어진 이슬람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 스페인에서 유행하던 3막극 '코

메디야가 상연되어 인기를 끌고 필리핀에 토착화되었다. '모로모로'라고 하는 별칭의 이 연극은 가톨릭 교도 왕자와 이슬람 공주 사이의 도덕에 어긋나는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양가의 전쟁 끝에 가톨릭의 정의에 감동한 이슬람 교도가 개종해서 결혼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세나크로'에 나오는 예수의 이미지는 유순하고 연약하여, 식민지배에 저항하지 않는 필리핀인 상이 형성되었다고 한다(대의경제정책연구원 1996, 76).

스페인의 점령과 더불어 서양악기가 들어와 교회를 중심으로 오케스트라가 편성되고 상류층 사회에서는 실내악도 즐기게 되었다. 부활절이나 5월의 꽃 축제 등 중요한 종교행사에서는 브라스 밴드가 따라다녀 상황을 고조시켰다. 또한 유럽 의상과 춤도 전래되어 필리핀 풍으로 정착되었던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토착문화가 잔여적 문화범주로 급속하게 전락하고 스페인의 문화적 전통이 일상의 생활영역을 거의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영향은 필리핀의 영웅 리잘의 소설들--*Noli Me Tangere*와 *El Filibusterismo*--에서 비유적으로 표현된다. 원래 필리핀의 창조신화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대나무가 갈라지면서 동시에 나오는 등가적 가치와 조화의 상징으로 표현되지만, 소설의 주인공 마리아 클라라(Maria Clara)는 엘리트 출신에, 순종적이고, 교양미 넘치는 신앙심 깊은 처녀로 묘사되어 온순성과 복종의 미덕을 대표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으며, 결국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받고 병약하게 죽어는 것이다. 물론 그의 작품들에서 마리아 클라라의 혈관에는 토착민이 아니라 유럽적인 피가 섞여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McGloin 1992). 결국 그는 식민지적 심성을 가진 필리핀인들에게 저항하지 않으면 죽음이 운명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해 주고 있지만, 마리아 클라라의 이미지는 당시 필리핀인들이 식민지적 심성에 침윤되어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유럽풍의 근대적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고 이탈리아의 오페라를 시골풍으로 변환시킨 스페인 오페라 살스에라가 1880년대에 필리핀에 들어와 1900년대에는 필리핀 언어로 공연되었으며, 가정문제, 결혼문제, 정치문제 등이 다루어졌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대의경제정책연구원 1996, 77-78).

당연한 일이지만, 스페인의 식민지 경영에 뒤이어 1898년 미국이 필리핀을

장악하자 저항의 대상은 미국으로 돌려졌다. 그러나 저항의지의 표출은 역설적으로 서구적 문화양식을 차용한 것이었다. 연극이 가장 대표적인 표현 수단이 되었다. 위에서 지적한 리잘의 경우에는 이러한 저항의식을 문학작품으로 표출시키기도 하였다. 그의 소설--*Noli Me Tangere*--에서 주창된 “우리가 ‘필리피노’이다”라는 선언은 그 자체가 ‘대항문화’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던 셈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식민지배는 스페인의 통치방식과 상당히 달랐다. 스페인이 거의 무혈 입성하여 저항없이 강제적 문화접변에 성공하였던 데 비해, 미국은 필리핀의 독립과정에서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제한적이거나 자발적 문화접변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발성을 도출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미국이 식민지 필리핀에 의무교육과 영어교육을 실시하였던 점을 들 수 있다. 교육기구라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활용은 정치적 순량화를 목표로 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필리핀에 가져다 준 부수적인 효과도 대단히 컸다. 스페인 점령의 결과 90%에 달하던 문맹률은 미국의 식민통치를 계기로 극도로 감소하고 오히려 90%의 인구가 문자해독 능력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Dolan 1991).

더구나 1930년대에 들어서 미국으로부터 영화가 직수입되고 영어교육이 일반화되면서 살스에라와 같은 단순한 이야기는 인기를 잃게 되었고 미국의 대중문화는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부유층들을 중심으로 상류층 사이에서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러한 동화과정의 한편에서는 문화계와 지식인들의 식민지 반대 활동도 활발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소설이나 시의 형태로 식민지 저항운동이 전개되었으며, 특히 1930년대에 마닐라 근교에서 경찰과 충돌하여 100여명의 농민 사상자를 발생시킨 ‘식민정부 전복혁명’과 ‘삭달(Sakdal)의 반란’이 일어난 시기에는 이러한 시대상황을 다룬 작품들도 발표되었다. 또 일본 점령기였던 1942-1945년 사이에는 일본문화를 주입하고 부분적으로 필리핀 독자문화를 장려하기도 하였지만 일본군에 의해 미국영화의 상영이 금지되자 반일감정을 묘사한 연극이 제한된 범위나마 자주 공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필리핀 문화에 각인된 미국 식민지배 하에서의 문화적 경험은 필

리핀의 문화지도를 완전히 색다른 형태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은 독립 후의 정치·경제적 대미 종속성과 맞물려 관성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병합과 접변을 계기로 서구문화에 동화되어 전통의 소멸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람시(A. Gramsci)가 지적한 헤게모니의 창출, 곧 '동의에 의한 지배'가 필리핀에서는 식민지적 심성의 착색과정과 연결되어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2)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조직원리의 변화

장기간의 접변을 통해 아시아와 서양의 독특한 결합양식을 보이는 필리핀의 문화양식은 사회적 가치와 조직원리에도 체현되어 나타난다. 기원전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해양무역을 토대로 하여 아시아의 말레이적 전통에 중국, 힌두, 이슬람 문화가 결합되었고, 16세기부터 약 370년에 걸친 히스패닉 문화의 유입과 20세기 들어서면서 시작된 미국문화와의 접촉이 이를 가능케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접변은 필리핀의 문화적 문법을 어떻게 변형시켰는가?

이미 지적했던 바, 전통적으로 필리핀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기초로 한 소규모 친족관계에 의해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실상 부계와 모계가 동시에 강조되는 양면적 친족제도 속에서 다투가 이끄는 바랑가이는 가족이라는 일차적 혈연관계의 연장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족주의적 연대와 사적 인간관계 사이의 친화력은 이미 후쿠야마에 의해 충분히 설명된 바 있다(Fukuyama 1995). 일종의 연고주의가 개입될 여지가 높고, 제도적 보호막이 없는 상황에서 혈연이나 친족관계, 그리고 이와 유사한 연줄망이 개인적 방어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인류학자들이 지적하는 이른바 빠끼끼사마(pakikisama)라고 하는 우호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군집적 보호관계가 그 상징적 표현이다. 더 나아가 일단 개인적인 신세를 지면 그것은 충분히 되갚아질 수 없으며, 세대에 걸쳐 그 빛이 승계되는 내면적 빛의 관계를 의미하는 우땅 나 룬(utang na loob)이라는 호혜적 관행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상업적 거래에서의 단골을 의미하는 수키(suki)

관계도 그 연장이다(이상윤 1992, 150; 양승윤 외 1998, 9장).

그런데 스페인에 의한 가톨릭의 영향으로 전통적 조직원리가 각색이 된 측면도 있다. 먼저 콤파드라즈고(compadrazgo)라는 의례적 친족제도의 대부·대모 및 후원관계는 양변적(bilateral) 친족제도를 보완하면서 필리핀의 사회조직원리로 확장되어 갔다. 그러나 원래 세례, 견진, 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례적 친족관계는 종교적인 측면보다 세속적인 유형으로 발전하여 유력자를 대부·대모로 하여 유대망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강화·확대되었다. 이 콤파드라즈고는 빠끼끼사마, 우땅 나 룽, 수키 등의 사적 동맹체제와 더불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시켜 왔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적 경계를 넘어 마닐라에까지 뻗치는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며 스페인 통치기의 일루스트라도스--그들은 대체로 부유한 지주층이다--의 뿌리에서 성장한 소수 정치 엘리트들과 연결되기도 하였던 것이다(Pye 1985, 125; Dolan 1991).

물론 대다수의 필리핀 인구는 공통의 가치와 공통의 종교로 결합되어 있다. 종교적 신념과 권위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자기방어적인 자존의식(amor proprio) 및 원만한 인간관계가 필리핀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연장자에 대한 존중은 권위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있으나 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다. 또한 수에르또(suerto)라는 용어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신의 의지에서 비롯된 복을 받고 산다”라는 종교적 가치관을 담고 있어서, 라틴계의 낙관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강력한 종교적 신념으로 발전하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겠지”라는 의미의 바할라나(bahalana)라는 운명론적 입장이나 체념론을 체질화하는 데도 기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양승윤 외 1998, 9장).

한편, 미국의 필리핀 지배 이후에는 일부 상류층 출신들이 미국의 정치·경제·문화에 깊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정치적 실험장이 되었던 식민지 필리핀에서는 대중들 사이에도 정치적 자유와 민주적 가치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었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와 친화력을 갖게 마련이다. 물론 필리핀에서 가족주의적 성향은 강하게 유지되어 왔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개별성에 기초한 상호존중 의식을 강조하며 체면유지를 중시하는 히야(hiya: 부끄러움)라는 감정이 그러한 개인주의적 요소와 선택적 친화력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이상운 1992, 150; 양승윤 외 1998, 9장).

더구나 미국의 대중문화¹⁶⁾가 갖는 오락적 요소는 필리핀인의 낙관주의와 어울려 독특한 문화적 양식을 창출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필리핀의 낙관주의는 히스패닉의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티니클링(Tinikling)이라는 대나무 춤이 그 보기이다. 이것은 식민통치 시절 하시엔다에서 이루어지던 대나무 막대 위에서의 형벌을 받는 모습과 농촌지역의 왜가리가 서있는 모습을 비유하여 이베리아 풍의 스타카토 박자에 따라 대나무 막대를 리드미컬하게 맞추고 무용수가 그 벌어진 틈에 발을 넣다가 빠는 연속동작으로 이루어진 춤인데, 이는 식민지배하에서의 키워온 인내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고통의 축제를 무용으로 승화시킨 필리핀인들의 낭만적 심성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히스패닉의 열정적 분위기에 젖어온 필리핀의 정서는 미국의 식민지배를 받으며 미국의 대중문화와 쉽게 접합점을 찾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낭만적 유희성에 가치를 두는 현대 필리핀의 의식성향은 이러한 문화적 혼혈과정에서 나타난 침전물이었던 것이다.

IV. 독립이후 대중문화의 확산과 정체성의 문제

1. 대중매체의 확산과 대중문화의 일반화

대중매체의 발달을 선도한 국가는 미국이며, 이는 이미 지적했던 바 1930년대 이후 본격화된 자본주의의 재편구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축으로 하여 '규모의 경제'가 확립되는 상황과 맞물려 문화상품의 대량복제가 가능해지고 문화양식의 반복적 소비를 대중매체가 자극했던

16) 우리말의 대중문화는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곧, 그것은 일반인들의 정서 속에 자리잡은 생활양식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축으로 하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1930년대 이후에 확립되기 시작하면서 대중매체를 통해 확산된 서구적 문화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후자의 개념에 한정시켜 논의를 전개한다.

것이다. 그리고 스페인의 오랜 식민지배를 경험한 뒤 곧 이어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된 필리핀에서는 이같이 대중매체를 통해 유포된 서구적 대중문화가 그다지 배격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독립이후 1950년대와 1960년대를 거치면서 서구적 대중문화의 확산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출범하였기 때문에 신문과 잡지가 먼저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대 보급되었다. 서구화된 문화양식과 가치가 문자화된 매체들을 타고 마닐라 주변에 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대중매체, 특히 신문은 대체로 대기업 소유주들의 사유물이 되어 있었고, 그나마 마르코스가 1972년 계엄령을 발표한 뒤에는 언론에 대한 통제도 극심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미 마닐라 등의 대도시에서 이러한 매체들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니었으며, 계엄령 폐지 이후로 그 보급률은 더욱 확대되었다.¹⁷⁾

그러나 독립이후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서구 대중문화의 확산에 있어서 파급력을 지녔던 매체는 라디오였으며, 필리핀에서 그것은 TV의 영상문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대체로 서구에서는 라디오 드라마가 1960년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지만, 필리핀에서는 라디오와 TV가 내용과 형식면에서 쌍두마차를 이루었다. 그리고 영화와 연극이라는 매체에 익숙해 있었던 필리핀인들에게 이 새로운 매체들이 가세함으로써 대중문화는 삶의 일부로까지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⁸⁾ 특히 TV 프로그램에서는 한 시간용 드라마가 지속적으로 방영되다가 1977년 '인생의 바퀴'(Gulong ng Palad)라는 연속극이 도입되고(BBC 채널 2), 1978년에 '러브 스토리'(Mga Kuwento-ng Pag-ibig)(RPN 채널 9)와 '감정'(Damdamin)(GMA 채널 7)이 뒤를 이음으로

17) 계엄령으로 폐간되었던 일간지들은 1986년 이후 복간되었다. 신문사는 20여개로 영자지가 14개이며 타갈로그어로 발행되는 것이 6개이다. 대기업 소유주가 절대다수 명예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데, 1900년에 설립된 *Manila Bulletin*이 발행 부수가 가장 많고(약 25만 부 이상), 2위는 15만 부의 *Manila Times*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111).

18) 필리핀에서는 이미 1912년에 영화가 제작되었고, 1924년에는 전국에 214개의 영화관(마닐라에는 34개)이 있었다. 그리고 1976년 영화제작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로손과 마닐라의 인구는 약 77만명이었는데, 두 도시의 매일 영화 관람객은 평균 약 18만명에 달했다.

써 대중적 인기를 끌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중문화는 사실상 독립 이전의 식민지적 심성과 연결되어 지배 이데올로기의 활용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연고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로 평가되던 필리핀의 자본가 계급들이 라디오와 TV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¹⁹⁾ “그들은 드라마를 대중들에게 먹이면서 현실을 왜곡 시켰다”는 비판도 자주 제기되었다(Nofuente, 1986). 드라마는 사랑놀음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니면 운명이 모든 것을 결정하거나 빈자들의 삶이 평화롭고, 억압받는 자들이 축복 받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환상을 통한 대리만족의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흰 것이 아름답다”(Maganda ang maputi), “쇼는 최고”(Masaya ang may Palabas), “싸움에 진 개에 비유될 수 있는 예측성”(Mabuti ang Inaapi), “이 세상은 허무하다”(Maganda pa ang Daigdig)라는 형태의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チョンソン 1985, 27).

1970-1980년대 대중매체의 보급으로 마닐라 중심의 대중문화도 서서히 전체 필리핀 군도로 확산되어 갔다. TV를 비롯한 미디어의 확산은 EPS Cycle(Elitist→Popular→Specialized)을 그린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지만(Wilson 1995, 16-18), 독립이후만 해도 엘리트들의 전유물에 가까웠던 서구적 대중문화가 점차적으로 농촌지역의 대중들에게까지 보급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 대중 매체의 확산은 더욱 진척이 되고 있으며, 도서지역 경우에도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¾이 규칙적으로 TV를 대하고 있다(Kenny 1996). 현재 필리핀의 TV 방송국은 국영 PTV(Ch4) 외에 민영방송국 5개, 지방중개국 64개사가 있으며, ‘SKY CATV’ 등 40여 개의 CATV사가 운영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111-112). 라디오도 전국 약 90개의 네트워크가 있으며 약 359개에 이르는 라디오 방송국(249개의 AM방송국, 105개의 FM방송국, 5개의 단파방송국)도 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는 편이다. 물론 이러한 대중매체는 서서히 필리핀

19) 미국의 식민지배 시기를 통해 토지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독립이후에도 이들 토지소유 지배층들은 강한 응집력을 지니며 통치 엘리트들과 긴밀한 유착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군도를 서구 대중문화의 철저한 수용지로 바꾸어 놓으며, 독특한 민족적 정체성의 확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²⁰⁾

2. 대중문화의 수용양식과 문화적 갈등: 문화 정체성과 미국화의 사이

문화접변은 상이한 두 문화가 접촉하여 특정 문화의 요소들이 다른 문화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그리고 문화접변과 관련해서 인류학자들은 그것을 ‘강제적 문화접변’과 ‘자발적 문화접변’으로 분류하고 전자의 대표적인 보기를 식민지배로, 후자의 대표적인 보기를 이민자의 경우로 지적한다. 그런데 필리핀의 경우는 이미 살펴보았듯이, 장기간의 식민지배를 거치면서 자발적인 형태의 문화접변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식민지적 심성이 문화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문화이론가 베리는 수용자들의 심리적 태도와 관련하여 문화접변 과정에서의 적응양식을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격리’(sepe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의 네 가지로 파악한다(Berry 1990; Triandis 1994, 238).

		자국의 문화에 대한 태도	
		긍 정	부 정
타국의 문화에 대한 태도	긍 정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부정	격리(sepe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그림 1) 문화접변 과정에서의 문화수용양식

20) 식민지 지배를 거친 태평양 연안에서 대중매체가 민족정체성을 위한 새로운 광장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연구가 제시되고 있는 바(Varan 1994), 필리핀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동일하다.

그림 1)에서 보듯이, '통합'은 자국의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타국의 문화에 대해 긍정적 수용의 자세를 견지하는 경우이고, '동화'는 자국 문화에 대해 부정하면서 타국의 문화양식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상황이다. 또, '격리'는 자국의 문화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타국의 문화를 배타적으로 배척하는 형태이며, '주변화'는 자국과 타국의 문화양식에 대해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례이다. 그리고 식민지적 심성에 길들여지면서 필리핀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통합'되면서 대체적으로 '동화'되는 방식의 문화접변을 보여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대중매체의 발전에 따른 서구적 대중문화의 확산을 계기로 필리핀은 서구의 상업적 대중문화에 더욱 많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멕시코와 같은 히스패닉 전통의 영향을 받았던 필리핀에서 '마리아 마리'(Maria Marie)라는 드라마가 태평양을 건너 애정물에 익숙한 필리핀인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있고, 미국적 대중문화를 많이 담은 위성방송망이 필리핀에 서서히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위성방송 StarTV를 통해 방영되는 미국영화(Star Movie)가 필리핀에게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고, CATV는 전체의 70%에 달하는 미국 제작물을 통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정용준·백유미 1997). 그 결과 필리핀인들은 미적 기준이 서구화되어 외모의 인위적 조성(코와 유방의 성형수술)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미제 상표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혼인 등의 수단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려는 경우도 대단히 많다. 디오메데스 마투란(Diomedes Maturan)이 필리핀의 페리 코모(Perry Como)로 인식되는 등, 할리우드 스타의 필리핀판 인물을 찾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다.²¹⁾ 베리가 지적한 '동화' 양상이 대중매체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조건이

21) 스페인을 이은 미국의 식민통치는 전임자들의 정책과는 완벽하게 달랐다. 그들은 필리핀에 대중교육의 확산과 영어의 공식화를 가져다 주었다. 단기간에 걸친 일본의 식민통치이후 1946년 독립을 쟁취하였으나 미국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았다. 최근 1990년대에 들어서 타갈로그어가 교육과 방송용 언어로 인정되고 있긴 하지만 영어가 그 위력을 상실한 것은 결코 아니다. 주요 신문은 영어판이고, 영어로 제작된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광고에도 영어가 활용되곤 한다. 결국 필리핀은 장기간의 통혼과 동화과정들 통해서 일구어온 문화적 통합의 열쇠를 자본주의의 맹주이자 문화산업의 선도자인 미국에게 일부 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갖추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의 수용과정에서 서구 대중문화가 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미국화의 상징으로 지적되는 맥도날드가 필리핀에 진출한지 15년 이상이 되었지만 필리핀인들의 기호에 맞추어 새롭게 등장한 졸리비(Jollibee)는 국내 체인점이 220개로서 맥도날드의 2배에 이르고 있으며, 조사결과 응답자 가운데 56%가 졸리비를 최근 방문한 데 비해 맥도날드는 19%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 것이다(McGurn 1997). 미국의 '새서미 스트리트'(Sesame Street)를 모방하여 필리핀 스타일로 바꾼 '바티보트'(Batibot)라는 어린이 교육용 쇼프로그램이 필리핀어인 타갈로그어로 1984년부터 방영되어 1970년 이래의 미국 번안물보다 훨씬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전직 배우라는 대중적 인기를 동원한 에스트라다(Estrada)가 미국적인 선거전략을 동원하면서도 필리핀인들의 대중적 정서에 파고들어 집권에 성공한 사례도 이와 유사한 문화적 텍스트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적인 전략을 동원하면서도 "영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필리핀 하층의 정서에 호소한 그가 "나의 우상은 레이건(Reagan)이며, 클링턴(Clinton)과 나는 공통점이 많다"고 강조했던 것은 필리핀의 현재 문화적 상황을 적실성있게 보여주는 셈이다(*Time* 1998/05/11). 미국식 대중문화 양식을 차용하였지만, 타갈로그어를 강조하면서 부분적으로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타갈로그어로 방영되는 TV 프로그램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기존의 통계적 연구결과에서 지적되었던 바, 집단주의적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도 측면에서는 미국이나 홍콩의 대학생들보다 뒤지고, 지구촌적 정체성은 미국과 홍콩에 비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을 보유한 나라 필리핀(Watkins · Gerong 1997). 현재 개방적 규제라는 문화정책을 펼치며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서구적 가치를 농도질게 흡수하고 있는 필리핀. 그러면서도 필리피노라는 자기 정체성과 타갈로그어라는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을 점차 강화해 가고 있는 필리핀.²²⁾

22) 최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Faith in the Philipino!"라는 구어는 공용어

따라서 현재 필리핀에서는 글로벌화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한편으로는 문화적 정체성을 상당히 상실하고 서구적 문화양식에 '동화'되어 온 과거의 궤적을 따르는 흐름(미국화)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 문화의 주체적 수용을 통한 문화적 '통합'의 흐름(타갈로그화)도 존재하며, 또 일부 산간지역이나 남부의 이슬람권에서는 서구문화의 유입흐름을 차단하여 문화적 '격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결국 필리핀은 여전히 문화접변의 과정에서 중심의 위치를 차지하려는 문화영역들의 '각축장'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필리핀은 미국화되고 있는 지구촌 문화와 민족주의적 정서 속에서 눈을 가린 채 선택의 손길을 뻗고 있는 것이다.

V. 맺음말

필리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토착문화가 없는 나라' 또는 '미국화된 아시아국가'라는 폄하된 평가로 점철되어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서구사회에로의 완벽한 동화현상이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해 주는 사례로 지적되곤 한다. 필리핀인들조차 필리핀적인 것을 찾으려고 해도 필리핀 고유의 문화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 정체성이나 문화적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평가는 외부자 뿐만 아니라, 내부인들의 시각에서도 포착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러나 망막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장구한 이동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동의 궤적들을 뒤쫓아 보면 다른 문화양식과 격리된 채로 토착문화를 유지한 사회가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토착성'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잣대로밖에는 파악될 수 없는 것이다. 특정 지역권에 정착하여 환경조건에 대한 생태학적 적응과정을 거치면서 고유의 삶의 양식을 형성하면, 바로 그것이 토착문화의 요소로 구성되는 것이며, 문화와의 접변을 통

를 둘러싼 언어게임의 상황을 감지할 수 있게 만드는 상징적 표현이다.

해서도 외래문화는 토착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문화접변을 통해 수용되는 방식--통합, 동화, 격리, 주변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수용과정에서 새로운 문화적 흐름의 결을 형성하는 과정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흔히 필리핀은 혼합문화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보다 논의를 정확히 하자면, 필리핀 역시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원을 갖는 문화들의 각축장이었다. 이미 지적했듯이 식민통치 이전의 필리핀은 말레이, 인도, 중국, 이슬람권에서 유입된 아시아적 전통을 갖는 문화양식들의 융합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갈래의 문화적 요소들은 농업 및 어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필리핀 사회에 토착문화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16세기에 스페인이 자본주의적 패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면서 필리핀은 기나긴 식민통치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가톨릭이 필리핀의 거의 전역으로 확산되어 동의에 의한 헤게모니적 지배의 이데올로기적 자원으로 활용되었고, 필리핀 사회는 히스패닉 문화에 강제적으로 접변되면서 서구적 문화양식을 토착문화에 통합하거나 그것에 동화되어 갔다. 물론 문화는 관성력을 갖기 마련이어서 스페인의 문화요소들이 필리핀 대중들의 정서를 서구적으로 착색시키기도 하였지만,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기 시작하였고, 상당수의 각성한 엘리트들은 비록 스페인 색채의 문화양식들을 활용하기는 하였지만 서구적 '문화중심'에 대한 '문화주변'으로부터의 저항을 시작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인디오'라는 용어 대신에 '필리피노'라는 주장을 편 리갈의 문학작품들은 그러한 대항문화의 전형이었다.

19세기말 파리조약을 통해 스페인을 대신하여 필리핀에 진출한 미국의 경우에는 스페인과 같은 강제적 문화접변의 방식이 아니라 교육과 대중문화를 통해 필리핀의 미국화 조류를 형성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유화정책의 결과 필리핀인들은 미국의 상업적 소비문화, 또는 대중문화에 거의 자발적인 형태의 문화접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특히 스페인이 우민화 정책을 펼쳤던 것과 달리, 미국은 영어교육을 통해 필리핀들에게 식민지적 심성을 심어주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언어게임을 통한 유연한 전략이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필리핀의 미국화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독립 이후에도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체계에 깊이 편입되었던 필리핀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의 문화적 능력압력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었다. 이미 식민지배과정을 통해서 각인되었던 식민지적 심성이 새로운 '문화의 세계체계' 속에서 필리핀 문화의 미국화를 지속시키며 필리핀인들을 문화적으로 동화시켜온 것이다. 그러나 과도적 형태의 정치구조와 산업화 과정에서 노출된 계급갈등은 최근 정보사회화라는 세기적 조류의 흐름에서 오히려 필리핀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각인시켜주기도 하였다. 특히 'Faith in the Filipino!'라는 구호와 타갈로그어의 강화는 토착문화가 대항문화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의 소산이었다. 이제 필리핀은 문화자본을 앞세워 전세계적틀 미국화시키고 있는 문화적 패권화에 맞서 새로운 각축전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리핀이 어떠한 양식으로 문화의 흐름을 만들어낼 지는 전적으로 필리핀인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김원태. 1991. 『대중문화의 이해』. 광주: 일진사.
- 김태승. 1989. "ASEAN국가의 역사와 문화." 『亞細亞 研究』, 제82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필리핀 편람』.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 박 회. 1997. "세계화의 전개과정—정치·경제, 사회·문화적 조건의 변화—."
- 유완빈·권정호·박경원·박 회·서원석. 1997. 『세계화와 규범문화』.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기성. 1992. "직접위성방송과 문화적 정체성."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쓰치야 겐지(土屋建治). 1997. "문화의 번역 - 의미공간의 성립." 야노토루(矢野暢) 편. 1997. 아시아지역경제연구회 옮김. 『지역연구의 방법』. 서울: 전예원.
- 양승윤. 1996. 『동남아와 아세안』.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양승윤 외. 1998. 『필리핀』.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윌리엄스(Raymond Williams). 1997. "문화의 분석." 고영복 편. 1997. 『문화사학회』.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유석춘. 1994. "필리핀의 사회제도: 가족, 종교, 교육." 『동남아시아연구』. 제3호.
- 이상윤. 1992. "필리핀." 동남아시아연구소 편. 『동남아시아지역학개론』. 대전: 한남대학교출판부.
- 정용준·백유미. 1997. 『동아시아 위성방송의 현황과 전망』. 서울: 한국방송개발원
- 존 스토리. 1997. 박 모 역.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서울: 현실문화연구.
- 한국언론연구원. 1997. 『세계의 미디어』.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チョンソン, G. ニカノール. 1985. "演劇と映畫における四つの價値觀." 룬베라·마세그 編. 1985. 『フィリピン大衆文化への招待』. 東京: 井村文化事業社.
- 寺見元惠 編譯. 1992. 『フィリピンの大衆文化』. 東京: 株式會社めこん.
- Time*. 1998. April 27.
- Time*. 1998. May 11.
- Asante, M. K. & W.B. Gudykunst. 1989. *Handbook of International & Intercultural Communication*. London: Sage.
- Ball, R. 1997.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Globalisation of Labour Market: The Case of the Philippines." *Environment and Planning*. Vol. 29.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A. Padilla, ed.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Some New Findings*. Boulder, CO: Westview.
- Braudel, Fernand. 1966. *The Mediterranean and the Mediterranean World in the Age of Philip II*, Vol. I, II. New York: Harper & Row.
- Carde·Gilsdorf. 1993. *Small Nations, Big Neighbour: Denmark & Quebec/ Canada Compare Notes on American Popular Culture*. London: John Libbey.
- Constantino, Letizia R. 1984. *Issues without Tears*, Vol. I. Quezon: Karrel.

- Dolan, Ronald E., ed. 1991. *Philippines*. Federal Research Division Library of Congress. <http://lcweb2.loc.gov/cgi-bin/query/r?frd/cstdy>.
- Friedman, Jonathan. 1994. *Cultural Identity & Global Process*. London: Sage.
- Fukuyama, Francis.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The Free Press.
- Gillespie, Marie. 1995. *Television, Ethnicity and Cultural Change*. London: Routledge.
- Hall, S. & P. du Gay. 1996.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London: Sage.
- Hannerz, Ulf. 1997. "Scenarios for Peripheral Cultures." Anthony D. King, ed. 1997. *Culture, Globalization and the World System: Contemporary Conditions for the Representation of Identi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Jandt, F. E. 1995. *Intercultural Communications*. London: Sage.
- Kenny, James F. 1996. "TV Viewing among TV Set Owners and Non-owners in a Remote Philippine Province."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 40.
- Korzenny, F. & S. Ting-Toomey. 1992. *Mass Media Effects Across Cultures*. London: Sage.
- Kuo, Chen-Tian. 1995. *Global Competitiveness and Industrial Growth in Taiwan and the Philippines*.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Lull, J. 1988. *World Families Watch Television*. London: Sage.
- Martin, David. 1990. *Tongues of Fire: The Explosion of Protestantism in Latin America*. New York: Blackwell.
- McGloin, Linda Acupanda. 1992. "Colonization: It's Impact on Self-Image." *FFP Bulletin*. Spring/Summer.
- McDaniel, D. O. 1994. *Broadcasting in the Malay World--Radio, Television & Video in Brunei, Indonesia, Malaysia and Singapore*. New Jersey: Ablex.
- McGurn, William. 1997. "Home advantage: local chain upstages

- McDonald's in the Philippines." *Far Eastern Economic Reviews*, Vol. 160. No. 20.
- Pye, Lucian W. 1985. *Asian Power and Politics*.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Robertson, Roland. 1992.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London: Sage.
- Rosaldo, Renato. 1989. *Culture and Truth: The Remaking of Social Analysis*. Boston: Beacon.
- Shils, Edward. 1970. "Center and Periphery." *Selected Essays by Edward Shils*. Center for Social Organization Studies,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Chicago.
- Thompson, E. P. 1966.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New York: Vintage Books.
- Triandis, Harry C. 1994. *Culture and Social Behavior*. New York: McGraw-Hill.
- Varan, Duane. 1994. "Television, culture and state: new forums for negotiating identity in the Pacific." *The Australian Journal of Media & Culture*, Vol. 3 No. 2.
- Wallerstein, I. 1990. "Societal Development, or Development of the World- system?" Martin Albrow and Elizabeth King, eds. 1990. *Globalization, Knowledge and Society*. London: Sage.
- Watkins, David & Andres Gerong. 1997. "Culture and Spontaneous Self-Concept among Filipino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37.
- Weber, Max. 1968.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Bedminster.
- Wilson, Stan Le Roy. 1995. *Mass Media/ Mass Culture*. New York: McGraw-Hill.